

연구논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부부간의 세력구조에 관한 한·일 비교*

홍상옥·片岡佳美·석지혜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甲南大學大學院 人文科學研究科,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대학원

A Cross Cultural Study of the Power Structure on the Conjugal Decision - making Process in Korea and Japan

Hong, Sang - Ook · Kataka Yoshimi · Suk, Ji - Hae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 Associate prof.
Dept. of Cultural science, Konang Univ. Japan Graduate school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 Graduate school

Abstract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research the power structure of the conjugal decision making process between husbands and wives and how to go about analyzing these processes. Furthermore, to statistically survey the similarities the differences of these between the Japanese and Korean cultur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women over the age of 20. The Korean wives resided in Taegu, the Japanese wives in Kobe. The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these subjects was bi - lingual in both Korean and Japanese.

The data results are as follows : The frequency of negotiation was highest when the wife conceived an idealistic balance in the magnitude of authority and control between she and her husband. On average, those wives who make decisions their husbands through negotiation do not have as high of a magnitude of control and authority as their husbands. These women idealistically believe that a balance of magnitude and authority exists between them and their husbands.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ships where decisions are made without negotiation, the magnitude of the wife's authority increases as she idealistically perceives herself as being more powerful than her husband.

Key word : Decision-making process, process approach, social context, power-structure

I . 서 론

최근 산업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남녀 동등한 역할개념이 발전되고 동등한 남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평등주의적이고 개인적인 가치관의 도입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여성의

전반적인 면에서의 지위향상과 더불어 가정내에서의 부부의 평등은 인간생활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실현되어야 할 과제로서 가족에 평등화, 개인화, 다양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기혼 여성의 취업률의 증대는 부부의 세력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예상된다.

* 본 연구는 1996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부부의 세력관계는 지금까지 부부간에 행해지는 의사결정을 통해 설명되어 왔다. 그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입장의 우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서, 부부의 세력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Blood와 Wolfe에 의한 디트로이트시의 조사는 그 후의 세력구조에 대한 조사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Wolfe, 1959 : Blood and Wolfe, 1960).

Blood는 어떤 사람의 권위가 크면 그 사람의 세력은 커진다고 보고 권위구조를 살펴보면 세력구조를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권위가 부부의 어느 쪽에 부여되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디트로이트시의 부부는 평균적으로 평등주의적인 권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력구조에 있어서도 평등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Blood가 행한 조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과로서의 세력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었으나, Olson은 권위와 결과로서의 세력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며 권위가 크면 세력도 커진다고 하는 생각은 부정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세력의 개념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부간에 있어서 세력은 부부의 상호작용과정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은 과정을 무시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세력관계에 대한 연구도 그러한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최재석, 1971 ; 한남제, 1985)

따라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세력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과정으로부터 세력을 살펴보고자 하며, 세력의 결과로서의 자원으로 권위와 통제를 살펴본다. Scanzoni와 Polonko는 권위 상황(인종, 연령, 결혼연령, 문제에 대한 이해), 자원적 상황(교육, 직업적 지위 등), 교섭과정에서 세력행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방향설정, 문화나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행위자의 만족도를 설정하여 자원이나 규범이 세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들 상황변수를 각각 비교해서 남편과 아내가 불평등할 때 교섭과정에 있어서 부부간에 관

용되는 정도, 세력의 불평등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것은 권위의 차이와 통제의 차이를 말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교섭은 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상황이 되며,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세력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된다. 즉, 사회적 상황이 세력의 자원인 권위와 통제를 결정하고 그들의 권위와 통제가 사회적 상황을 조작하면서 상호작용한 결과 세력이 생기며,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상황이 생기며 이것이 또 다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권위와 통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력을 A에 의해서 의도되는 효과를 B의 행동에 나타내게 할 수 있는 A의 능력'이라고 규정하여, 현대의 부부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세력관계를 나타낼 것이며,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것인가를 명백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일양국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부부간의 세력구조에 대해 통계적으로 실증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원설, 규범설과 권위 approach

세력관계는 세력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설명되는데, Scanzoni는 기존연구를 살펴 그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Scanzoni, 1979). 즉, 세력은 누군가를 당사자와 비교, 평가하여 의도대로의 결과를 보다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비교, 평가는 당사자간의 의사결정 장면에서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부부의 세력관계에 대한 설명은 지금까지 부부간에서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도 Blood와 Wolfe에 의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의 조사연구는 그 후의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기혼여성에게 대해 가족생활에 있어서 8개의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쪽의 배우자가 언제 최종결정을 내리는가를 질문하였다. 그 반응으로부터 직접 부부의 세력관계를 취해 자원설을 도출하였다. 즉, 직업적 권위, 수입, 최종학력 등이라고 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보다 많이 가지는 배우자 부부간의 의사결

정에 있어서 세력이 보다 크다고 하는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한편, Buric와 Zecevic은 Blood와 같은 방법을 써서 기존의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조사에 언급하면서, 그들의 사회에서는 자원설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것을 규범설로 설명하였다(Buric and Zecevic, 1967). 이후, 많은 연구자는 Blood의 방법을 사용하여 부부의 세력관계를 논하여 왔다. 그런데, Olson과 Rabunsky는 Blood의 방법으로는 세력의 크기가 아니라, 오히려 권위의 크기를 끌어낸다라고 하였다(Olson and Rabunsky, 1972).

권위란, Blood의 정의에 의하면, 세력이 보다 큰 것에 대한 정당성의 인지에 근거한 것이다(Blood and Wolfe, 1960). 예를 들면,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한 편의 배우자가 보다 우위인 입장에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지되어 있으며, 그 사람에게 보다 큰 권위가 배분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Olson에 의하면, Blood가 분석에 사용한 회고적 방법은 그 회답자 자신에 의해서 정당하다고 인지되는 부부관계를 반영하게 되므로 그것은 객관적인 남편 혹은 아내의 권위의 크기라기 보다는 회답자가 자신이나 배우자에 배분하는 권위크기를 이끌어 내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설이나 규범설은 개인이 자기자신이나 배우자에 배분하는 권위의 크기에 대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미국에서는 남편절대우위의 규범이 약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규범을 내면화하고 남편은 아내보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자원의 크기나 배경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여 우위인 입장을 지켜나가야 하였다. 한편, 그리스나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아직 그러한 규범이 유효하였으며, 문화적 성차라고 하는 근거만으로 남편은 보다 큰 세력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남성우위의 규범이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서는 남편의 권위의 크기가 그의 세력의 크기에 직결되기 쉬웠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는 이러한 권위 approach에 의한 세력연구가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범이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상

황은 달라지게 된다.

2. Process approach

Olson과 Rabunsky(1972)는 권위만으로 세력을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반복되어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결국 부부의 누구의 세력이 더 컸는가(=결과로서의 세력의 크기)를 알기 위한 지금까지의 조사연구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Olson은 예측되는 세력의 크기, 과정에 있어서의 세력의 크기, 회고되는 세력의 크기를 살펴 결과로서의 세력의 크기를 아는데 유효한가를 조사하였다. Olson은 부부간에 있어서 세력은 부부의 상호작용 과정의 결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은 과정을 무시하였으며, 결과에 있어서 zero-sum game적인 정적모델을 사용하여 결과로서의 세력의 크기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권위가 큰 사람이 항상 세력이 크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며, Olson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세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 교섭과 통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부부의 상호작용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주목되기에 이르렀다. Cromwell과 Olson(1975)은 상호작용에 있어서 세력을 ①세력의 기초 ②세력의 과정 ③세력의 결과로 이 들 3영역을 취하면 세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세력의 기초가 의미하는 것은 권위이다. 즉, 권위는 다른 사람이 행위자에게 세력을 양보하기 위한 어떠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력의 과정은 Olson과 Rabunsky가 강조하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여기서 의사결정 과정의 처음단계에서 정당화되어 있지 않았던 세력이 정당화되는 것을 목표로 당사자간에 교섭이 이루어지며, 그것은 합의 추구의 과정이다. 그러나 세력의 기초가 너무나 강하면, 이 영역은 출현하지 않을 수 있다. 세력의 결과는 세력의 기초와 세력의 과정이 상호작용하는 어느 시점에서의 결과이다. 이 세력의 결과가 세력연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세력이라고 불리어

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알기 위해 ①과 ②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즉, 세력관계는 세력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며, 세력의 기초와 세력의 과정은 세력의 결과의 원천이다.

Corrales(1975)는 세력이 권위차원과 통제차원으로 설명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권위는 규범적 혹은 정당화된 세력에 근거한 의사결정에 반영되며, 통제는 상태의 합의를 얻으려고 하기 위한 압력이나 호소에 반영된다. 따라서 통제는 ②의 세력의 과정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Corrales는 Blood의 방법을 사용하여 부부의 권위배분의 유형을 측정하였다. 권위배분 유형에서는 남편우위형이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제에서는 평등형부부가 가장 많았으며 권위에서는 아내우위형이 상당히 적었으나, 통제에서는 아내우위형이 크게 나타났다. 권위와 통제의 불일치는 권위만으로 세력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의사결정의 처음단계에서 행위자의 세력행사가 어느 정도 정당화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력행사가 권위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지 통제에 근거하는지 정해진다. 그것은 세력의 원천에는 권위와 통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적 상황

Scanzoni와 Polonko(1980)는 자원이나 규범이 세력의 원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Strauss(1978)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권위와 통제의 양쪽에 관련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즉, 넷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변수가 부부간의 교섭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모델이다. 하나는 권위적 상황 즉, 인종, 연령, 결혼년수, 문제에 대한 이해 등 당사자들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자원적 상황이다. 즉, 교육, 직업적 지위 등의 유형자원과 그 때까지의 교섭경험이나 목적달성능력이라고 하는 무형자원이다. 셋째는 앞으로의 교섭에 있어서 세력행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방향설정이다. 이것은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세력관계에 대한 규범이나 이상을 의미한다. 넷째는 다른 사람의 과거의 교섭에서의 행동에 근거하여 행위자가 행하는 방향설정이라고 하는 상황변수이다. 이것은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문화나 타자

와의 관계에 대한 행위자의 만족도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남편과 아내의 이들 상황변수를 비교하여, 정도나 수량에서 불공평할 때, 교섭과정에서 상대에게 관용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 가능성과, 한편의 배우자에게 세력이 편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것은 권위의 크기와 통제의 크기에서 부부간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상황이 누가 정당화된 세력을 가질 것인가, 즉 권위 배분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결과로서의 세력에 그다지 영향력을 가지지 않을 경우, 통제가 문제된다.

통제는 교섭과정에서 나타나며, 통제의 크기는 사회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당사자는 합의에 이른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상황이 이루어지며, 이것이 또 다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권위와 통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

Ⅱ. 연구방법

1. 조사의 개요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한국 대구시와 일본의 神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의 조사는 대구시 7개구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주부를 대상으로 유치원, 초, 중,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어머니가 답한 것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700부를 배부하여 388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55.4%이다.

일본의 조사는 兵庫縣 家庭問題研究所가 兵庫縣 在住의 20세 이상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송에 의한 질문지 조사이다. sample은 層化多段抽出法에 의해 선정된 7지구(2區, 4市, 1町)의 선거 인명부로부터 각 층의 20세 이상의 여성인구의 비율에 따라서 2000명분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유효 회수표수는 674이며, 회수율은 33.7%이다.

한국과 일본의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1, 표2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으며, 한국이 일

〈 표 1 〉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한국)

집 단 구 분	빈도 (%)	집 단 구 분	빈도 (%)		
남편 연령	20, 30대	169 (44.0)	남편 학력	중졸이하	22 (5.7)
	40대	87 (22.7)		고졸	119 (31.0)
	50대	79 (20.6)		전문대졸, 전문학교졸	37 (9.6)
	60대 이상	44 (11.5)		대졸	168 (43.8)
				대학원졸	32 (8.3)
아내 연령	20, 30대	205 (53.4)	*아내의 그룹활동	자치회, 반상회, 부인회	154 (40.1)
	40대	87 (22.7)		스포츠, 취미	121 (31.5)
	50대	59 (15.4)		연구회	21 (5.5)
	60대 이상	29 (7.6)		자원봉사활동	38 (9.9)
				자모회, 청소년 그룹	52 (13.5)
				기타	50 (13.0)
막내자녀 취학여부	미취학	168 (43.8)	*남편의 그룹활동	자치회, 반상회, 부인회	59 (19.3)
	초등학생	65 (16.9)		스포츠, 취미	179 (46.6)
	중학생	10 (2.6)		연구회	32 (8.3)
	고등학생	38 (9.9)		자원봉사활동	38 (9.9)
	전문대 이상	61 (15.9)		자모회, 청소년 그룹	8 (2.1)
	사회인	32 (8.3)		기타	53 (13.8)
아내 직업	전문기술직	35 (9.1)	아내의 연수입	없음	210 (54.7)
	행정관리직	5 (1.3)		1200만원 미만	46 (12.0)
	사무직	12 (3.1)		1200만원이상-2400만원미만	50 (13.0)
	판매직	48 (12.5)		2400만원이상-3600만원미만	19 (4.9)
	서비스직	10 (2.6)		3600만원이상-4800만원미만	9 (2.3)
	농림업직	6 (1.6)		4800만원이상-6000만원미만	3 (0.8)
	단순노무직	5 (1.3)		6000만원이상-7200만원미만	2 (0.5)
	시간제 근무	7 (1.8)		7200만원 이상	1 (0.3)
	전업주부	205 (53.4)			
	기타	34 (8.9)			
	남편 직업	전문기술직		63 (16.4)	남편의 연수입
행정관리직		61 (15.9)	1200만원 미만	26 (6.8)	
사무직		70 (18.2)	1200만원이상-2400만원미만	105 (27.3)	
판매직		85 (13.9)	2400만원이상-3600만원미만	101 (26.3)	
서비스직		127 (22.1)	3600만원이상-4800만원미만	47 (12.2)	
농림업직		13 (3.4)	4800만원이상-6000만원미만	31 (8.1)	
단순노무직		13 (3.4)	6000만원이상-7200만원미만	13 (3.4)	
무직		12 (3.1)	7200만원 이상	26 (6.8)	
기타		47 (12.2)			
아내 학력	중졸이하	58 (15.1)	결혼년수	10년 이하	185 (48.2)
	고졸	150 (39.1)		11-20년	59 (15.4)
	전문대졸	46 (12.0)		21-30년	97 (25.3)
	대졸대학원졸	98 (25.5)		31년 이상	43 (11.2)
	19 (4.9)				

missing 처리되어 수치에 차이가 있음

*는 복수 응답 항목임

〈 표 2 〉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일본)

집 단 구 분	빈도 (%)	집 단 구 분	빈도 (%)			
남편 연령	20, 30대	116 (17.2)	남편 학력	중학	116 (17.2)	
	40대	166 (24.6)		고교	279 (41.4)	
	50대	199 (29.5)		단대, 전문학교졸	41 (6.1)	
	60대 이상	183 (27.2)		대학	191 (28.3)	
아내 연령	20, 30대	155 (23.0)	대학원	14 (2.1)		
	40대	184 (27.3)	*아내의 그룹활동	자치회, 반상회, 부인회	328 (48.7)	
	50대	206 (30.6)		스포츠, 취미	218 (32.3)	
	60대 이상	119 (17.7)		연구회	73 (10.8)	
		자원봉사활동		70 (10.4)		
막내자녀 취학여부	미취학	99 (14.7)	*남편의 그룹활동	자모회, 청소년 그룹	74 (11.0)	
	초등학생	75 (11.1)		기타	24 (3.6)	
	중학생	36 (5.3)		아내의 연수입	없음	266 (39.5)
	고등학생	46 (9.6)			스포츠, 취미	172 (25.5)
	전문대 이상	65 (9.6)			연구회	58 (8.6)
	사회인	302 (44.8)			자원봉사활동	38 (5.6)
		자모회, 청소년 그룹	40 (5.9)			
		기타	26 (3.9)			
아내 직업	전문기술직	36 (5.3)	아내의 연수입	1200만엔 미만	233 (34.6)	
	행정관리직	6 (0.9)		1200만엔 이상 - 2400만엔미만	238 (35.3)	
	사무직	67 (9.9)		2400만엔 이상 - 3600만엔미만	80 (11.9)	
	판매직	29 (4.3)		3600만엔 이상 - 4800만엔미만	32 (4.7)	
	서비스직	18 (2.7)		4800만엔 이상 - 6000만엔미만	19 (2.8)	
	농림업직	15 (2.2)		6000만엔 이상 - 7200만엔미만	7 (1.0)	
	단순노무직	9 (1.3)		7200만엔 이상	0 (0.0)	
	시간제 근무	113 (16.8)			2 (0.3)	
	전업주부	313 (46.4)				
	기타	22 (3.2)				
남편 직업	전문기술직	85 (12.6)	남편의 연수입	없음	15 (2.2)	
	행정관리직	125 (18.5)		1200만엔 미만	24 (3.6)	
	사무직	114 (16.9)		1200만엔 이상 - 2400만엔미만	123 (18.2)	
	판매직	48 (7.1)		2400만엔 이상 - 3600만엔미만	185 (27.4)	
	서비스직	26 (3.9)		3600만엔 이상 - 4800만엔미만	114 (16.9)	
	농림업직	23 (3.4)		4800만엔 이상 - 6000만엔미만	87 (12.9)	
	단순노무직	70 (10.4)		6000만엔 이상 - 7200만엔미만	36 (5.3)	
	무직	3 (0.4)		7200만엔 이상	37 (5.5)	
	기타	77 (11.4)				
	기타	79 (11.7)				
아내 학력	중학	99 (14.7)	결혼년수	10년 이하	112 (16.6)	
	고교	342 (50.7)		11 - 20년	130 (19.3)	
	단대, 전문학교졸	138 (20.5)		21 - 30년	204 (30.3)	
	대학	61 (9.1)		31년 이상	198 (39.4)	
	대학원	1 (0.1)				

missing 처리되어 수치에 차이가 있음

*는 복수응답 항목임

본에 비해 20, 30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막내자녀 취학여부, 결혼년수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어 일본에 비해 젊은 연령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 측정도구 및 분석

본 연구는 같은 내용으로 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각각의 모국어를 사용하였다.

질문지에서는「올해 여름휴가」「결혼 후의 아내의 취업」「최근의 연중행사」「보고싶은 T.V. 프로그램의 우선권」「남편 친구의 방문 일시」「최근의 가족여행」「남편의 직업상의 문제」에 대해 각각 결정을 할 때 「남편이 혼자 정했다」「아내가 혼자 정했다」「부부가 상의하여 정했다」의 어느 방법을 취하는가에 대해 물었다. 여기에서 비교적 최근의 의사결정을 묻는 것은 사회적 상황요인에 대한 아내의 인지가 회답시점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의해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타협의 정도를 물었다. 선택지는「아내가 상당히 타협하였다」「아내 쪽이 타협한 편이다」「양쪽이 같은 정도로 타협하였다」「남편 쪽이 타협한 편이다」「남편이 상당히 타협하였다」의 5개를 설정하여 통제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예를 들면, 「아내가 상당히 타협하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내의 통제는 작아진다. 교섭의 빈도는 7개의 항목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 「부부가 상의하여 결정」한 수의 빈도이다. 합계가 7에 가까울수록 교섭의 빈도가 높다. 그리고 사회적 상황요인은 「부부관계에 대한 아내의 만족도」「남편의 연령」「아내의 연령」「막내자녀의 연령」「아내의 직업적 지위」「남편의 직업적 지위」「아내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가」「남편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가」「결혼년수」「아내의 연수입」「남편의 연수입」「아내의 학력과 남편의 학력의 차」「남편과 아내의 학력의 합계」「남편과 아내의 연수입의 합계」「아내의 연수입으로부터 남편의 연수입을 뺀 수의 크기」「아내의 학력」「남편의 학력」「아내가 자주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그룹활동의 수와 남편이 자주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그룹활동의 수를 뺀 수의 크기」「일치형인가」「부부가 상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아내가 이상으로 하는가」「권위와 통제에 있어서 부부평등을 아내가

이상으로 하는가」「권위 혹은 통제에 있어서 아내가 우위인 것을 이상으로 하는가」이다.

2. 연구가설

일치형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통제의 크기가 남편보다 작으면, 부부간의 세력은 균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세력을 살펴보는 데는 권위만이 아닌 통제도 고려에 넣을 필요가 있게 된다.

통제의 크기는 교섭에서 이루어진다. 교섭은 의사결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쌍방이 평등하게 권위가 배분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어떤 요인이 교섭의 빈도를 높이는가, 그리고 교섭에 있어서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통제의 크기가 다른 배우자보다 커지는 것일까.

Scanzoni와 Polonko의 모델에 따르면, 교섭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행할 것인지 아니면 교섭을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을 행할 것인지는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어떠한 사회적 상황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 가설 1** 아내와 남편의 자원, 부부에게 주어진 상황,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아내의 이상, 부부관계에 대한 아내의 만족도, 부부의 권위배분의 유형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교섭의 빈도에 영향을 준다.
- 가설 1-a** 아내가 취업함으로써 자원이 증대하면 의사결정과정에서 교섭의 빈도가 높아진다.
- 가설 1-b** 부부가 상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아내가 이상으로 하면 의사결정과정에서 교섭의 빈도가 높아진다.
- 가설 1-c** 아내가 부부관계에 만족하고 있을수록 의사결정과정에서 교섭의 빈도가 높아진다.
- 가설 1-d** 일치형의 권위배분 유형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교섭의 빈도가 높아진다.
- 가설 2** 아내와 남편의 자원, 부부의 사회경제적 요인은 아내의 통제의 크기에 영향

을 준다.

가설 2-a 아내가 취업함으로써 자원이 증대하면, 아내의 통제 크기는 증대한다.

가설 3 남편의 자원은 아내의 권위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IV. 결 과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교섭의 빈도, 아내의 통제의 크기, 아내의 권위의 크기와 상관관계가 보여진 사회경제적 요인은 표1, 표2와 같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교섭의 빈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가설1과 그에 근거한 가설1-a~d를 검증한다. 한국의 경우 표3으로부터 가설 1-a, b, c, d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교섭의 빈도」즉,「부부가 상의하여 결정한다」고 하는 목적변수를 설명하는데 어떤 사회경제적 요인이 설명변수가 되는가를 살펴보기 위

해서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5와 같다.

표5에 의하면,「아내의 연령」「부부가 상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가」「일치형인가」「아내의 학력과 남편의 학력을 합한 크기」의 네 변수가 교섭의 빈도를 잘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가 상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을 이상으로 할수록, 부부간에 일치형일수록, 아내와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교섭의 빈도가 높다고 하는 것이다. 아내의 취업, 아내의 직업적 지위, 아내의 연수입이라고 하는 자원이 교섭의 빈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들 변수는 교섭의 빈도와는 상관이 있었으나, 중회귀식의 설명변수가 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는 표4로부터 가설 1-a는 기각되나, 가설 1-b, c, d는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섭의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6과 같다.

표6에 의하면, 「막내자녀의 연령」 「부부가 상의

< 표 3 >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한국)

	부부관계 만족도	아내의 연령	남편의 연령	막내자녀 연령	아내의 직업	남편의 직업	아내의 부와 동거하는가	아내의 모와 동거하는가	남편의 부와 동거하는가
교섭빈도	-.357**	-.233**	-.257**	-.235**	-.109*	-.067	.026	.103	.046
권위크기	.118*	.118*	.117**	.161**	.019	.078	-.028	-.042	-.040
통제크기	-.217	-.037	.025	.089	-.041	.029	.152	.152	-.022
	남편의 모와 동거하는가	결혼 년수	아내의 연수입	남편의 연수입	아내의 연수입 에서 남편의 연 수입을 빼 크기	아내의 연수입 과 남편의 연수 입을 합한 크기	아내의 학력 남편의 학력	남편의 학력 남편의 학력을 빼 크기	아내의 학력에서 남편의 학력을 빼 크기
교섭빈도	.046	-.224**	.108*	.046	.023	.090	.202**	.175**	.069
권위크기	-.068	.095	.009	-.136**	.130*	-.098	-.116*	-.148*	.009
통제크기	-.028	.009	-.039	.123	-.164	.058	.122	.315**	-.229
	아내의 학력과 남편의 학력을 합한 크기	아내의 그룹활동 수에서 남편의 그 그룹활동수를 빼 수	일치형인가	부부가 상의해서 의사결정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가	권위와 통제에 대해서 아내 우위를 이상으로 하는가	권위와 통제에 있 어서 부부평등을 이상으로 하는가			
교섭빈도	.210**	.039	.214**	.201**	.065	.214**			
권위크기	-.145**	-.028	.075	-.088	.132*	-.004			
통제크기	.251*	.398**	.220	.106	.266*	.033			

< 표 4 >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일본)

	부부관계 만족도	아내의 연령	남편의 연령	막내자녀 연령	아내의 직업	남편의 직업	아내의 부와 동거하는가	아내의 모와 동거하는가	남편의 부와 동거하는가
교섭빈도	-.323**	-.232**	-.233**	-.229**	-.037	-.125**	.038	.084*	.049
권위크기	.212**	.174*	.184**	.177**	.058	.053	-.065	-.057	-.117*
통제크기	-.227	-.026	.089	.138**	.146	.068	.155	.225	-.070
	남편의 모와 동거하는가	결혼 년수	아내의 연수입	남편의 연수입	아내의 연수입 에서 남편의 연 수입을 뺀 크기	아내의 연수입 과 남편의 연수 입을 합한 크기	아내의 학력 남편의 학력	남편의 학력 뺀 크기	아내의 학력에서 남편의 학력을 뺀 크기
교섭빈도	.001	-.211**	.014	-.027	.018	-.024	.141**	.119**	-.019
권위크기	-.061	.151**	.009	-.071	.071	-.054	-.121*	-.112*	.024
통제크기	-.048	.073	-.104	.062	-.141	-.001	.197	-.006	-.225
	아내의 학력과 남편의 학력을 합한 크기	아내의 그룹활동 수에서 남편의 그 룹활동수를 뺀 수	일치형인가	부부가 상의해서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가	의사결정 하는가	권위와 통제에 대해서 아내 우위를 이상으로 하는가	권위와 통제에 있 어서 부부평등을 이상으로 하는가		
교섭빈도	.143**	-.008	.170**	.178**		-.008	.242**		
권위크기	-.128**	-.027	.116*	-.067		.269**	-.145**		
통제크기	.092	.169	-.035	-.087*		.026	.163		

< 표 5 > 교섭빈도를 목적변수로 한 중회귀분석 결과 (한국)

	중상관계수	.162			
	결정계수	-.150			
	자유도 조정 후 결정계수	1.5776			
	분석표에 의한 중회귀의 검정	F=13.679 Signif F= .000			
변수	편회귀계수	표준회귀계수	T	Sig T	목적변수와의 상관
아내의 연령	-2.97E-02	-.180	-3.423	.001	-.231 (P=.000)
부부가 상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가	.660	.166	3.248	.001	.201 (P=.000)
일치형인가	.796	.161	3.241	.001	.212 (P=.000)
아내의 학력과 남편의 학력을 합한 크기	3.780E-02	.123	2.360	.019	.215 (P=.000)
(정수)	5.998		7.460	.000	

〈표 6〉 교섭빈도를 목적변수로 한 중회귀분석 결과 (일본)

		중상관계수				
		.117				
		결정계수	.108			
		자유도 조정 후 결정계수	1.5696			
분석표에 의한 중회귀의 검정		F=12.777	Signif F= .000			
변 수	편회귀계수	표준회귀계수	T	Sig T	목적변수와의 상관	
권위와 통제에서 부부평등인것을 이상으로 하는가	.514	.133	2.735	.006	.235 (P=.000)	
막내자녀의 연령	-.277	-.338	3.931	.000	-.194 (P=.000)	
부부가 상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가	.476	.136	2.869	.004	.185 (P=.000)	
일치형인가	.564	.107	2.414	.016	.151 (P=.000)	
결혼년수	2.586E-02	.179	2.088	.037	-.118 (P=.005)	
(정수)	4.827		10.209	.000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가」 「권위와 통제에서 부부평등인 것을 아내가 이상으로 하는가」 「일치형인가」 「결혼년수」의 다섯 변수가 교섭의 빈도를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아내가 권위나 통제에서 부부평등인 것을 이상으로 할수록, 막내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이상으로 할수록, 일치형일수록, 결혼년수가 많을수록 교섭의 빈도가 높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내의 취업, 아내의 직업적 지위와 연수입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교섭의 빈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양국에 있어서 공통으로 교섭의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가 상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을 이상으로 할수록, 일치형일수록 교섭의 빈도는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아내의 통제의 크기라고 하는 목적변수에 대해서는 아내의 타협의 정도가 적을수록 아내의 통제가 크다는 것으로서 아내의 통제가 가장 큰 것은, 5점이 주어지는 「남편이 상당히 타협하였다」이다. 표는 생략하였으나, 한국과 일본의 아내의 통제점수를 보면, 한국과 일본 모두 평균점수가 능치 3점보다 낮은 2.40과 2.38을 나타내어 아내의 통제가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아내의 취업과 취업에 의해서 얻어지는 자원요인이 아내의 통제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가설 2-a를 검증한다. 가설 1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장 적합한 설명변수인가를 중회귀분석을 통해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표7에 의하면, 한국은 「권위 혹은 통제에 있어서 아내우위인 것을 이상」으로 할수록, 「남편의 학력」 「아내의 그룹활동수에서 남편의 그룹활동수를 빼 수」가 클수록 통제의 크기가 증대한다고 하는 것이며, 표8은 일본의 경우로 「막내자녀의 연령」과 「부부가 상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을 이상」으로 할수록 아내의 통제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원 및 사회경제적 요인이 아내의 통제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가설2는 성립하나, 아내의 직업이나 그에 관한 자원이 아내의 통제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가설2-a는 한·일 양국 모두에 있어서 성립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설3은 남편의 자원이라고 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아내의 권위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다. 아내의 권위의 크기의 특징을 목적변수로 하여 가설 1, 2의 검증과 같은 방법으로 검증을 하였다.

〈 표 7 〉 아내의 통제크기를 목적변수로 한 중회귀분석 결과 (한국)

	중상관계수	.335			
	결정계수	.303			
	자유도 조정 후 결정계수	2.54449			
	분석표에 의한 중회귀의 검정	F=10.557		Signif F=	.000
변 수	편회귀계수	표준회귀계수	T	Sig T	목적변수와의 상관
아내의 그룹활동수에서					
남편의 그룹활동을 빼수	1.664	.451	4.341	.000	.398 (P=.000)
남편의 학력	.285	.270	2.535	0.14	.315 (P=.000)
권위 혹은 통제에 있어서 아내가	1.823	.262	2.438	0.18	.266 (P=.000)
우위인 관계를 이상으로 하는가					
(정수)	15.263		9.246	.000	

〈 표 8 〉 아내의 통제크기를 목적변수로 한 중회귀분석 결과 (일본)

	중상관계수	.034			
	결정계수	.030			
	자유도 조정 후 결정계수	1.4044			
	분석표에 의한 중회귀의 검정	F= 8.129		Signif F=	.000
변 수	편회귀계수	표준회귀계수	T	Sig T	목적변수와의 상관
막내자녀의 연령	.104	.149	3.234	.001	.138 (P=.001)
부부가 상의해서 의사결정을 하					
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는가	-.375	-.124	-2.684	.008	-.111 (P=.009)
(정수)	3.742		22.397	.0000	

한국의 경우 표9에 의하면, 「권위 혹은 통제에 있어서 아내우위인 관계를 이상」으로 할수록,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지 않을수록, 「남편의 소득」이 적을수록 아내의 권위의 크기가 증대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표10에 나타내는 바와 같다. 표10에 의하면, 「권위 혹은 통제에 대해 아내우위인 관계를 이상」으로 할수록, 「아내의 연령」이 많을수록, 「아내의 연수입에서 남편의 연수입으로 빼수」

가 클수록 아내의 권위의 크기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양국 모두에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성립된다. 이상에서 가설1에서 3을 검증한 결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아내의 이상, 남편의 연수입, 남편의 연령과 아내의 연령, 막내자녀의 연령 등이 설명변수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아내의 직업이나 그와 관련된 아내의 자원은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9 〉 아내의 권위의 크기를 목적변수로 한 중회귀분석 결과 (한국)

	중상관계수	.089			
	결정계수	.076			
	자유도 조정 후 결정계수	7.657			
	분석표에 의한 중회귀의 검정	F=6.924	Signif F=	.000	
변 수	편회귀계수	표준회귀계수	T	Sig T	목적변수와의 상관
권위 혹은 통제에 있어서 아내 우	7.300E-0.2	.168	3.233	.001	.160 (P=.001)
위인 관계를 이상으로 하는가	.459	.230	4.039	.000	.132 (P=.006)
부부가 상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것					
을 이상으로 하는가	-.338	-.183	-3.188	.002	-.088 (P=0.48)
남편의 소득	-5.23E-0.5	-.123	-2.296	.017	-.134 (P=0.05)
(정수)	.505		4.142	.000	

〈 표 10 〉 아내의 권위의 크기를 목적변수로 한 중회귀분석 결과 (일본)

	중상관계수	.119			
	결정계수	.109			
	자유도 조정 후 결정계수	.956			
	분석표에 의한 중회귀의 검정	F=12.285	Signif F=	.000	
변 수	편회귀계수	표준회귀계수	T	Sig T	목적변수와의 상관
권위 혹은 통제에 대해서 아내우	.605	.257	4.520	.000	.271 (P=.000)
위인 관계를 이상으로 하는가					
아내의 연령	1.436E-0.2	.166	2.907	.004	.180 (P=.001)
아내의 소득에서 남편의 소득을	3.660E-04	.121	2.123	.035	.143 (P=.001)
벤 수					
(정수)	4.457E-02		.165	.869	

V. 고 찰

조사의 결과로부터 교섭의 빈도는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아내가 어떠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교섭의 빈도가 높은 부부에 있어서는 권위와 통제에 있어서도 부부평등이라는 것을 아내가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일본), 양국 모두에 있어서 부부가 상의해

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권위와 통제에 있어서 부부평등이라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것과의 사이에 상관관계가 보인다. 한편, 아내의 통제의 크기를 목적변수로 하는 중회귀분석에서는 부부간에 상의해서 의사결정하는 아내의 이상이 설명변수가 되고 있으며(일본), 통제와 권위에 있어서 아내가 우위라고 하는 이상이 설명변수가 되고 있다(한국). 이것은 아내의 통제

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내가 이상으로 하는 의사결정은 실제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이 된다.

또한, 설문내용 중 이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을 「집안의 일은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며, 대체로 남편의 의견이 관철된다」와 「집안의 일은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나 대체로 아내의 의견이 관철된다」와 「집안의 일은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며, 두 사람의 의견이 동등하게 관철된다」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부가 대등한 입장에 서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평등지향」으로 하고, 「남편이 혼자서 결정한다」 「아내가 혼자서 결정한다」 등을 「권위불평등지향」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섭의 빈도는 권위평등을 지향하는 경우의 부부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각각의 목적변수가 나타내고 있는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아내의 가치관이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권위가 보다 큰 아내의 조건과 통제가 보다 큰 아내의 조건에는 차이가 있으며, 아내의 취업은 아내의 권위의 크기에, 통제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결정에 대한 아내의 이상, 남편의 연수입, 막내 자녀의 연령이다. 본 조사에서 얻어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의사결정에 있어서 교섭의 빈도는 아내가 권위의 크기와 통제의 크기에 있어서 부부간에 차이가 없는 것을 아내가 이상으로 하고 있을수록 높다.

② 교섭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행하는 부부에 있어서 아내의 통제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작다.

③ ②와 같은 아내일수록, 권위와 통제에 있어서, 부부간에 차이가 없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④ 교섭을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을 행하는 부부에 있어서 아내의 권위의 크기는 아내가 자신의 권위 혹은 통제의 크기가 큰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을수록 증대한다.

VI. 결 론

가설검증의 결과로부터 현대 한국과 일본의 부부의 세력관계를 설명하는데는 공통된 특성을 나

타내고 있으며, 부부의 세력관계를 권위 approach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치형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세력의 크기는 통제의 크기에 따라서 나타나며, 통제의 크기에 대해서는 process approach에 의해 명백해진다. 그러나 아내의 실제의 통제의 크기는 아내의 사회경제적 자원과 유의한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즉, 교섭에 있어서 세력을 둘러싼 교환의 지표로 되는 자원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섭에 있어서 통제의 크기로 직접 세력의 크기를 논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에 있어서 통제의 크기=세력의 크기라고 하는 생각은 교섭에 있어서 상대방보다 자신의 통제가 크게 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상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세력을 둘러싼 교섭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어느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에서는 상대방이 우선적으로 되어 자신보다 큰 통제를 나타내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배우자도 있을 것이며,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실제의 부부의 의사결정에서 보다 많이 실현시키려고 하는 배우자간에 교섭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는 교섭의 결과에 있어서 나타나는 통제의 크기만으로는 부부의 세력관계를 전부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어느 선택지가 다른 선택지보다 「좋다」라고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을 「선호」라고 한다면, 각 배우자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부부간의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신들 부부관계에 대한 선호」가 될 것이다. 이것이 실제의 의사결정에서의 교섭에서 자신의 통제의 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은 비록 교섭에 있어서 통제가 크다고 해도 자신의 의도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세력관계는 의사결정장면에서 교섭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교섭이전의 단계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대한 선호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대 부부의 세력관계는 어느 쪽의 배우자의 선호가 보다 많이 실현될 것인가하는 점까지가 관찰될 수 있는 과정을 중시하는 process approach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통제는

의사결정장면에서의 교섭에서 뿐만 아니라 선호의 실현을 위해 취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통제의 크기로부터 세력의 크기를 이끌어 낼 수가 있게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부부의 세력관계를 주로 권위 approach에 의해 설명해 왔으나, 본론에서는 process approach를 적용하여 교섭과 통제로 세력관계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따라서 금후의 과제로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대한 각 배우자의 선호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선호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의 부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각 배우자의 선호가 실현되기 위한 결정요인에 대해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론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 연구하여 부부의 세력관계 연구에 대한 보편적인 방법론을 시도하였으나, 조사대상의 표집 및 사회문화적인 심층분석이 더욱 필요하다.

참고문헌

- 손현숙(1993), 부부권력관계에 관한 연구 - 진주 지역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윤현봉(1985), 부부간의 권력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 Blood와 Wolfe의 상대적 자원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재석(1971), 한국도시(서울)가족의 권력구조, 아세아연구, 4권 4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한남제(1985), 한국도시가족연구, 일지사.
- Bahr, S. J. and Rollins, B. C. (1971), "Crisis and Conjugal Pow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360-367.
- Bahr, S. J. (1973), "The Internal Consistency of Blood and Wolfe's Measure of Conjugal Power: A Research Not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5, 293-295.
- Blood, R. O. and Wolfe, D. M. (1960), *Husbands and Wives: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Free Press.
- Buric, O. and Zecevic, A. (1967), "Family authority,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Social Network in Yugoslavi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9, 325-336.
- Burr, W. R., Ahern, L. and Knowles, E. M. (1977), "An Empirical Test of Rodman's Theory of Resources in Cultural Contex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505-514.
- Centers, R., Raven, B. and Rodricgues, A. (1971), "Conjugal Power Structure: A Re-exami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 264-248.
- Corrales, R. G., (1975), "Power and Satisfaction in Early Marriage", in Cromwell, R. E. and Olson, D. H. (eds.), *power in families*, Sage Publications, 197-216.
- Cromwell, R. E. Olson, D. H., (1975),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f Power", in Cromwell, R. E. and Olson, D. H. (eds.), *power in families*, Sage Publications, 15-37.
- Dizard, J., (1968), *Social Change and the Family*, University of Chicago, Family and Community Study Center.
- Kantor, D. and Lehr, W., (1975), *Inside The Family: Toward a Theory Process*, Jossey-Bass. (野野山久也譯, (1990), 「家族の内側 - 家族システム理論入門 -」, 垣内出版)
- Kolb, T. M. and Straus, M. A., (1974), "Marital Power and Marital Happiness in Relation to Problem-Solving 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756-766.
- Olson, D. H., (1969), "The Measurement of family Power by Self-Report and Behavioral Metho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 545-550.
- Olson, H. and Rabunsky, C., (1972), "Validity of Four Measures of Family Pow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 224-234.
- 春日井典子(1990), 現代家族におけるパワーースキャンソニのパワー 이론 - 大阪薫英女子短期大學研究報告, 25, 79-89.

- 菰淵綠(1991), 夫婦の勢力構造に關する理論的枠組 - 研究史に見る問題点の考察を中心として -, 社會問題研究, 大阪府立大學社會福祉學部, 41(1+2), 205-220.
- 菰淵綠(1992a), 勢力構造, 野村哲也編, 現代日本の夫婦關係 - 夫婦關係の變化に關する實證的研究, 大阪府立大學社會福祉學部, 39-57.
- 菰淵綠(1992b), 夫婦の勢力構造再考 - 測定・分析に向けて -, 社會問題研究, 大阪府立大學社會福祉學部, 42(1), 19-36.
- 片岡佳美(1997), 現代夫婦の勢力關係研究についての - 考察, 家族社會學研究, 日本家族社會學會編, 9, 57-66.
- 増田光吉(1960), 現代都市家族における夫婦及び姑の勢力構造 - 神戸市の場合 - 甲南大學文學會論集, 社會學科編, 27, 49-66.
- 松信ひろみ(1993), 夫婦の勢力關係 - アメリカでの研究動向を中心として -, 上智大學社會學論集, 17, 117-134.
- 宮野直子(1970), 共働き家族における夫婦關係の權威構造に關する - 考察 - 主婦專業家族との比較 -, 大阪女子學園短期大學紀要, 14, 65-73.
- 本村汎・斧出節子(1987), 夫婦の勢力構造と子どものパーソナリティ, 大阪市立大學生活科學部紀要, 35, 443-442.